

2008년 3월 12일-*특주: 산 제물.

신약 성경 OUTLINE

-로마서(73)-

225. 합당한 섬김

말씀: 롬 12:1

요절: 롬 12:1

오늘은 “합당한 섬김”(reasonable service)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겠습니다. 섬김으로 번역된 service는 라디오, TV 등과 같이 따로 번역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외래어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service란 말을 듣고 볼 수 있고, 사용합니다. 식당에 가나 은행에 가나 관공서에 가나 물건을 사도 모두 service를 따지고 평가합니다. self service, after service, medical service, Tax Service, government service, Intelligent service, Immigration Service, financial service, weather service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요즘은 차별화된 서비스, 고객을 만족케 하는 정도를 넘어 감동시키는 서비스로 경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기업들은 고객들을 향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합니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사용되는 어휘들은 일상 생활과 동떨어진 별개의 말들이 아닙니다.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멀리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롬10:8). 그렇다면 service에 대해 일상적 어휘 개념을 마음속에 새긴 후에 말씀을 보십시오.

service는 serve(섬기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예배, 섬김, 의식, 예식, 일” 등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었지만 그 핵심 의미는 같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service란 단어의 용례를 잠깐 살펴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7년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딸을 아내로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창29:27). 야곱은 후에 라반을 떠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을 섬긴 것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for thou knowest my service which I have done thee)라고 합니다(창30:26).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service의 용례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전에 약 400년 간 종살이를 하면서 이집트를 섬겼습니다. 그 때 사용된 단어가 service입니다. 이들의 서비스는 합당한(reasonable)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서비스는 ‘합당한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전혀 부당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this service)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출12:25-26). 예식이라고 번역

역한 이 단어가 바로 service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고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가 건져 주셨기에 그에 해당하는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야 할 service 였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무엇을 줄 때 상응하는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통신 요금을 내야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fee를 내야 전문가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서비스 산업이 최고인 시대입니다. 일을 하든지 돈을 내든지 무엇을 해야 그에 따른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주인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그들의 노동이나 기술이란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사는 대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자, 이제 서비스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심지 않는 포도원과 우물과 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제사장 왕국이요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너는 이 말들을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출19:6). 이외에도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한 service(섬김)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호 합의 아래 피를 뿌림으로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맹세를 율법에 기록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아멘으로 동의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합당한 서비스(reasonable service)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저주가 되시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신데 대해(엡5:2) 우리가 해야 할 서비스(service)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데 대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서비스는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서비스입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요, 성령을 주신 것 역시 값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나 은혜에 대한 값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바쳐야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헌신은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께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주님의 생명을 받고, 주님의 모든 것을 값없이 받아 누리는데 그 은혜를 안 성도들이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부당하거나 터무니없는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으로도 이치에 합당한 요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다면 우리 역시 우리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합당한 섬김(reasonable service)]**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1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롬12:1).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가? 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섬김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데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막10:45). 자신의 몸을 한 알의 밀알로써 죽는 것이었습니다(요12:24). 바울 역시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첫째,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주님께 드리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 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롬6:13). 하나님은 우리 몸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몸을 포도 나무의 가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과 발, 눈과 입과 혀가 다 주님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이 바로 ‘의의 도구’입니다. 자신의 지체를 주님께 드린 사람은 그것을 다시 죄에게 내어 줄 수 없습니다. 나의 손을 주님께 내어 주었다면 내 손은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니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입을 주님께 내어 드렸다면 내 입은 더 이상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섬김입니다.

둘째, 너희 몸을 거룩하게. 우리 몸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세속의 종교인들은 고행과 금욕을 통해 몸을 확대하는 것을 거룩한 줄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분리)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용도와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 놓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몸의 용도를 주님께로 똑 떼어 놓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로서 주님을 위해 내어 주면 그 자체가 거룩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술 취함이나 방탕함에 내어 주지 않고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자신의 몸을 음행에 내어 주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의 핵심은 자신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제대로 아는데서 시작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세상이나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핵심은 ‘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엡5:10). 가인처럼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희생물, 주님이 받을 수 없는 희생물을 드린 뒤에 주님을 향해 분노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없는 육신의 행위를 받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율법의 의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받지 않으십니다.

넷째, 너희 몸을 살아 있는 희생물로.

죽은 행위가 아닌 살아 있는 희생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개요(224) 신약개론(로마서), 말씀 침례교회 /주일 오후

요한복음 4:23-24,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아노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요4:23-24).